



프로젝트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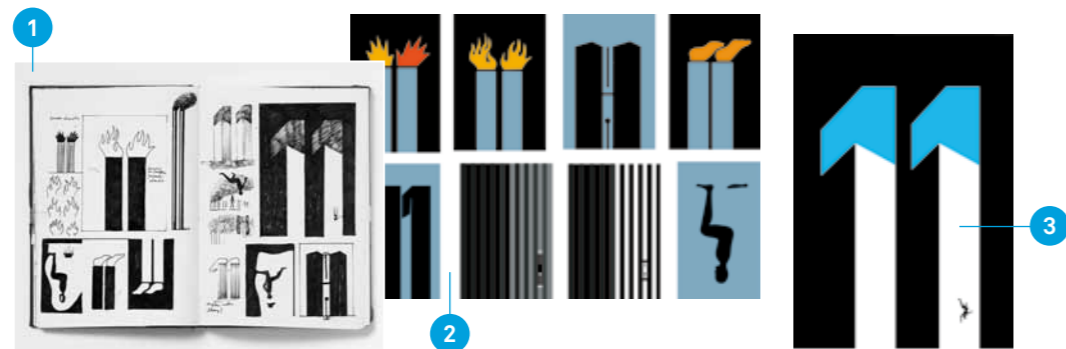
노마 바

여백의 아름다움을 사용할 줄 알고 벡터의 간결함을 예쁘게 활용하는 데에 선수인 노마 바가 이번엔 돈 들릴로의 작품집 표지를 담백하게 수놓았다

프로젝트: 돈 데릴로 소설집 표지
클라이언트: 맥밀란 퍼블리싱 MacMillan Publishing
(이츠 나이스 댓츠 니스 Nic That을 통해)
지역: 영국 런던
주소: www.dutchuncle.co.uk/noma-bar

맥밀란 퍼블리싱이 미국 작가인 돈 들릴로의 책들을 출판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 이츠 나이스 댓츠 니스 Alex Bec에게 표지 그림을 요청했다. 알렉스 벡은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인 노마 바에게 연락을 해 같은 요청을 했다.

들릴로의 책은 해전쟁, 스포츠, 행위 예술, 언어, 수학, 국제 테러 등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할, 표지를 그리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들릴로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10권으로 요약한 전집 각각의 표지를 그려야 했습니다. 저 역시 책의 상당 부분을 읽어왔고,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혼자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스케치하는 등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핵심이 되는 그래픽 요소들이 윤곽을 드러내기가 시작했습니다." 노마 바가 그 길었던 과정을 설명한다.



- 1/ "10개의 표지를 완성하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시 사항이나 요구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책의 내용과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더 폴링 맨' The Falling Man에서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팔처럼 그리고, 불길은 손처럼 표현했죠. 다른 건물들은 다리처럼 그려보구요."
- 2/ "리처드 드류 Richard Drew의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사람이 떨어져 있는 사진이죠.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이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더 폴링 맨'의 표지 그림이죠. 들릴로의 이 소설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던 9/11 생존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3/ "스케치를 완성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보냈습니다. 이야기나 사진, 리처드 드류의 사진들은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 이것을 그래픽으로 새롭게 구성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11'이란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각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보이는 하늘을 위에 표현했고, 모든 사건은 11이란 숫자 안에서만 벌어지도록 했습니다. 추락하는 사람도 작게 그려 넣었고요."
- 4/ "클라이언트 역시 저와 의견이 맞았습니다. '11' 그림을 골랐더라고요. 사실 이 작품은 제 사무실에 있는 안토니 버필 Anthony Burrill의 'KK' 조각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 조각상 뒤에는 종이 화살표가 붙어 있는데 예전에 그걸 접어서 '11'이라는 작은 종이 장식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때부터 이 표지는 완성될 운명이었다던 것 같아요."
- 5/ "약간의 수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작품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냈습니다. 남은 아홉 개의 표지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봤을 땐 대범하고 남성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표지들이지만, 두세 번 보다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07

이미지베이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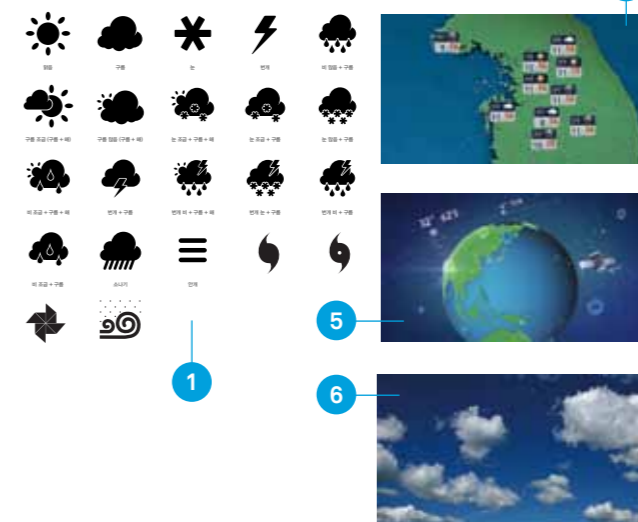
영화 트레일러를 비롯한 영상 및 모션 그래픽 작업을 위주로 활동해 오다가 3년 전 앱스토어 시장에 뛰어든 욕심쟁이 최경모 대표가, 최근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KBS 날씨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프로젝트: 'KBS 날씨'의 아이덴티티 리뉴얼
클라이언트: KBS 보도그래픽부
지역: 서울
주소: www.imagebakery.tv

KBS는 하루에 12번 기상을 예보한다. 보통은 날씨 자체의 정보와 아나운서의 차분한 설명에 눈에 띄지 않지만, 날씨 예보 영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그래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면 바닥에 깔린 지도부터 '흐림', '비', '눈' 등을 뜻하는 아이콘, 아나운서의 안내에 따라 변하는 화면들과, 그 화면들이 전환하는 방식, 텍스트 등,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래픽 디자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방송에 맞게 배치하는 것은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라 바로 방송을 진행할 아나운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나 타이포그래피의 활용이 정규 방송임에도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상청 정보를 빠르게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픽을 제대로 작업하기엔 시간이 매우 모자랐다. 시청자의 눈에 확연히 될 정도는 아니지만 폰트가 살짝 찌그러지거나, 날씨 아이콘이 어색하게 정렬된 적도 있었다.

KBS의 보도그래픽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이미지베이커리와 연락을 취했다. 'KBS 기상정보'의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부여해달라는 것이었다. "일단 타이틀부터 새롭게 바꿔요. 'KBS 기상정보'를 'KBS 날씨'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그래픽 요소들로 신뢰감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경모 대표의 설명이다.



- 1/ "일단 날씨 방송의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BBC 등의 해외 방송도 보고 한국의 다른 방송국들의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씨 아이콘 40개를 만들었습니다. 40개의 인을 놓고 내부 회의를 해서 최종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에게 단색을 제안했는데, 클라이언트는 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도록 입체적인 형태와 다양한 컬러를 원했습니다."
- 2/ "기존 그래픽을 보면서, 지도가 전혀 디테일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렇다고 세계 지도를 세세하게 그릴 시간은 없어 한국 지도만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로 했습니다. 구급법을 가지고 포박 1주일 동안 작업했습니다."
- 3/ "세계 주요 도시 천여 개를 흰 점으로 찍어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죠. 나중에 점을 다 찍고 다 선으로 이으니깐 그대로 지도가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순간적으로 지나 갈 그래픽이고, 점만 하나 있고 없다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픽이란 것이 워낙 사람들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것이라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 4/ "기본적으로 폰트는 통일했습니다. 일단 시각의 측면에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큰 방향 아래, 영문은 딘체로 했고, 한글은 워비우스체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 과정에도 많은 회의와 논의를 거쳤죠. 그렇게 일정한 폰트와 정밀한 지도로 그래픽의 신뢰도를 높였지만, 무언가 다른 장치를 더 넣어 보고 싶었습니다."
- 5/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삽입했습니다. 날씨 예보도 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학 용어나 단위들을 넣으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 수치들은 그냥 랜덤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흰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도시들의 실제 좌표값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의 힘을 빌렸습니다."
- 6/ "디스플레이 시점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대형 화면에 고화질로 구현되는 작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픽 플랜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합니다. 저희는 위도, 경도 표시되어 있는 대도시들의 실제 좌표값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래밍의 힘을 빌렸습니다."
- 7/ "실무자들끼리는 클라이언트의 꾸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크게 까다롭게 굴거나 엄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제안을 보고 저희도 창작자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취하지 않고, 충분히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제출했습니다."